



‘응답하라 1950!’ 아직 못 다한 이야기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노인독서프로그램 운영사례 -



김 동 석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팀
팀장
libds08@naver.com

들어가며

공공도서관은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족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 등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습득과 문화 활동에 사회적 제약이 많은 계층, 이른바 정보소외계층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노인 계층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정보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는 아직 빈약하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은 도서관에서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의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노년층의 이용비율이 높고 아파트 단지와 노인복지관이 인접해 있어 오고가는 길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은 편이다.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던 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응답하라 1950! 내 인생의 별 하나

노인 계층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활자본을 활용한 노인 독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응답하라 1950! 내 인생의 별 하나’(이하 응답하라 1950!) 프로그램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 큰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에서 동기를 얻어 기획하였다. 과거의 이야기에 시청자가 열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어르신들 역시 드라마 속 인물처럼 빛나는 시간이 존재할 거라 생각되어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응답하라 1950!’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준비한 부분은 강사 섭외였다. 참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프로그램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줄 강사가 필요했다. 여기에 자서전·회고록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었다. 등단 후 많은 르포를 기고하고 자서전 강의 경력도 많은 작가분이셨다. 평소 노년층 글쓰기 지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흔쾌히 도서관의 제안을 승낙하셨다.

‘응답하라 1950!’은 전반부는 ‘이야기’, 후반부는 ‘글쓰기’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특히 전반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다양한 삶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그램 선정도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의 일부를 서로 나눠 읽은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대부분의 시간을 참여자 간 공감대 형성과 본인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했지만 프로그램 초기에 어르신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살아온 시간이 많은 만큼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 받은 경험이 많아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오히려 다른 연령대보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참여자의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기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힘들고 당혹스러운 시기였다. 다행히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열의가 높아, ‘글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점차 가슴 속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전반부 ‘이야기’가 ‘글쓰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면 후반부 ‘글쓰기’는 풍성해진 이야기를 정제하여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글쓰기’에 대한 열의가 높아 전반부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셨다.



하지만 서로 주고 받은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참여자들은 조금씩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 하시며 지금의 삶이 그 어느때보다 행복하다는 60세 소녀와 평생을 사시면서 아들없이 딸만 낳아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70세 어머니, 그리고 60년이 지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외숙모를 그리워하는 80세 조카까지... 작품 속에서 어르신들은 우리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였다.

예상보다 훨씬 다채로운 이야기가 쏟아져서 이를 작은 작품집으로 엮어서 한 부씩 드리기로 하였다. 특별한 편집없이 어르신들의 작품만을 담아 전통제본 형식의 작은 문집으로 만들어 마지막 발표회 시간에 드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의 작품을 읽어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셨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글로 표현한 분부터 여러 습작이 있는 분까지 서로의 글에 공감하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마지막을 아쉬워 할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를 통해 참여자간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맺는말

프로그램 마지막 날 어느 어르신이 “편하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도서관에서 거창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소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도서관 서비스의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는 우리도서관의 노인 계층만을 위한 지식정보제공 서비스 ‘실버인서강’과 연계하여 각 분야별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와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함께 토론하는 ‘다섯수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하지만 도서관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정보소외계층이 아닌 도서관 이용자의 한 부분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본다. 🍷